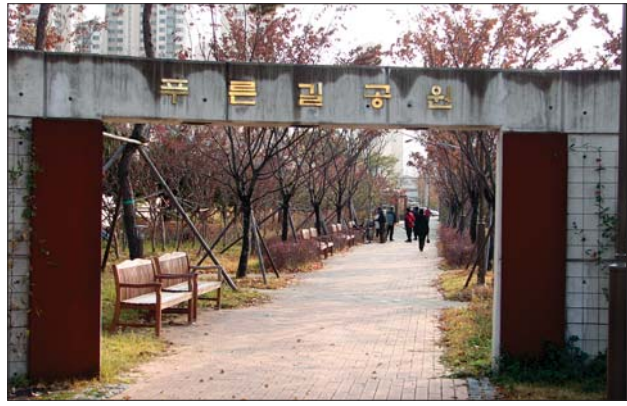


공원 탐방

9 푸른길 공원



푸른길공원 입구



공원 입구를 알리는 표지문 옆 옛 철로



길 중간 중간에 설치된 광장 및 벤치

‘추억의 숲’ 낙엽 밟으며 느릿느릿

2 공원 입구(독립로)~동구 계림동

광주역을 통과한 철로는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독립로 앞에서 멈춰섰다. 지난 2000년 8월10일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 구간(10.8km)을 폐지하고 대신 광주송정역~서광주역~효천역 구간(11.0km)을 신설되면서 폐선 부지는 공원이 됐다. 이로 인해 광주역은 종착역이 됐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철로는 시멘트 벽에 가로막혔다.

그 건너편에 푸른길공원의 입구가 있다. 이 입구 주변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줄지어 있다. 물론 최소 2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이들 점포들은 도심 내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쇠락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오전 20여 개에 이르는 점포에 손님은 고작 3~4명에 불과했다. 독립로 주변에 이들 점포가 들어선 것은 광주시가 팽창일변도에 있었던 지난 70년대부터라고 전해진다. 당시 광주의 인구가 폭증하면서 동구와 서구 일부로 구성된 도시는 계속 확장됐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는 필수품이었다. 확장 방향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것이 이들 점포들이었다.

그러나 무한정 계속될 것 같았던 도시의 팽창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멈췄고, 게다가 대규모 건축자재 공급업체, 대규모 마트 등의 공세에 점포의 매상은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푸른길공원 탓에 흩날리는 낙엽, 겨울 길목의 쌀쌀한 날씨와 이들 점포의 쇠잔한 모습은 묘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원 입구를 알리는 표지문 옆에는 옛 철로 10m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철로가 광주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사실 이 철로는 경전선(慶全線), 즉 경상도와 전라도

를 잇는 철도의 일부인 광여선(광주~여수선)이었다. 광주역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그 형태도 없는 남광주역을 통과해 광주 시가지를 남쪽으로 돌아 여수에 이르는 광여선이 개통한 것은 지난 1930년. 이 철로는 광주 도시성장을 예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행정의 중심이었던 광주가 전라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물류 이동이 급증하고,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70년간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광여선의 광주 도시 구간인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 주변에 상가가 몰

곳곳에 광장·벤치·운동기구 배치

주변 단독주택 거주 노인들 많아

리고, 주택이 들어선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차량의 소음이 말끔히 사라졌다. 공공근로에 나선 60대 어르신들의 잡담이 그것을 대신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3일밖에 못하게 해 불만이라는 정모(67) 할머니는 “이 좋은 공원에 누가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쓰레기봉투를 흔들었다.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4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단독주택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허름한 채로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지붕과 외관을 개량해 나름 디자인된 주택도 자리하고 있다.

3년 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으로 이사왔다는 서모(73)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꽃도 심고 동네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며 “사위가 깨끗하게 집을 수

리해줘 마음 편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서 할머니는 집 바로 앞인 공원 한쪽에 꽃밭을 조성하고, 지나는 모든 사람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유일한 서 할머니의 취미이자 직업인 셈이다. 공원 길은 단독주택, 나무 사이를 이으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들과도 조우하고 있다. 물론 차량으로 인해 공원 길이 단절되고 있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있는 30대 주부 등은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듯 보였다.

10년 전 푸른길공원 인근으로 이사했다는 이모(63)씨는 “푸른길공원이 생겨 집 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안 오른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길을 걷다 보면 공원 벤치에 나온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의 집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가끔 채소를 햇빛이 드는 날에는 공원에서 ‘사람 구경’하며 다듬는 것이다. 또 대부분 단독주택의 거주자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푸른길은 단독주택지역을 빠져나와 4·19로에서 첫 신호등 횡단보도와 만난다. 여기를 지나면 계림동 금호아파트를 시작으로 고층아파트들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한쪽은 허름한 단독주택들로 채워져 있다.

푸른길공원의 장점은 중간 중간에 광장, 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한 ‘추억의 숲’ 사업으로 인해 식재돼 있는 식물도 다종다양하다.

이 구간 주변에 점집, 카페 등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걷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소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구간은 계림동 재개발아파트단지 앞까지 이어진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도시 속 작은 숲이 된 푸른길공원



푸른길공원과 4·19도로가 만나는 횡단보도



옥상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다듬고 있는 한 할머니

‘빛의 도시’ 광주 밤거리 확 밝아졌다

최근 광주시의 밤거리가 밝아지고 있다. 관문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노랑고 흐릿한 조명의 낡은 가로등들이 백색의 환한 조명과 함께 산뜻한 공기디자인 기법이 적용된 가로등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전문 직렬로만 전기사업업을 구성하고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개선사업과 함께 광산업 핵심사업인 LED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나타난 성과들이다. 가장 먼저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이 실시됐다. 지난 2007년부터 관문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등 5000여 본과 함께 외곽 취락지역과 통학로 등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안등 1만2000여 등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하남사업

문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LED조명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광주시의 LED 도시(City) 선포와 함께 LED가로등 24본, LED보안등 170본 등 LED조명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로 LED버스승강장 시범사업이다. 광주시 표준디자인 버스벨터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전원으로 LED조명과 음악방송을 조합한 LED 버스승강장을 광역스포츠주변 10개소와 빛고을노인복지타운앞 등 11개소에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감시설로 꾸미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교통감시카메라 지주를 이용한 교차로 밝기개선이다. 광주시 내부제안과 행정안전부의 중앙우수제안에 입상한 아이디어로 최근

LED조명 사업 3년...가로등 1만7000개 교체



LED조명으로 바뀐 버스승강장.

단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관제장치를 표준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운영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했다. 새로운 통합관제시스템은 무선기간통신망(CDMA)을 이용해 조명시설을 실시간 감시하고 개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원격제어로 추진돼 가로등과 보안등의 안정기 고장, 누전 등 고장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각 구성 운영자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과 모바일 웹에 표시되는 도로조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원격제어를 통해 켜-소등하고 회로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사례가 타 지자체에 알려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파주시, 대전시, 부산시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지역을 방

‘비우고 통합하는’ 도시디자인 추세에 맞춰 광주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 지주 설치비용인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여섯 번째는 도로조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창출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허등록 1건, 실용신안 등록 1건, 디자인등록 1건, 소프트웨어 등록 2건 등 여러 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기술료 등 재정수입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세계빛도시연합(LUCI) 회원국인 아프리카 베냉국 아보메시와 에 가로등 50본 가량을 지원하는 등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앞으로도 광주시에서는 빛을 이용한 시민편의사업에 앞장서 빛고을 광주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Merry Christmas advertisement for Hiddink Hotel. Features a woman in a Santa hat, a Christmas tree, and a hotel building. Text includes 'Special Events', 'event 01', 'event 02', 'event 03', and '런치스페셜'.

Advertisement for composer Jeong Wul-seong. Features a portrait of the composer and text about his achievements: '한국이 낳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가 정율성선생 (1914~1976)', '중국인구 40%이상 (6억이상)', '중국인구 80%이상 (10억이상)', and '중국 3대 음악가중 1명으로 추앙'.